

◆머느리권씨 열전 24-3

이귀(李貴 연안 이씨)의 어머니 증 정경부인 권씨 (시중공파22세 권용의 딸)

연안 이씨(延安 李氏)

연안 이씨(延安 李氏)는 황해남도 연안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중국 문벌귀족의 가문이자 당나라 황실의 성씨이기도 했던 농서 이씨의 후예인 연안 이씨는 농서 이씨 시조 노자의 후예이자 오호십육국시대 서량의 초대 황제였던 농서 이씨 중시조 흥상제 이고의 후손이다. 따라서 연안 이씨의 비조는 노자의 조상인 고요이며, 도시조는 노자이다. 당나라 황실과는 종친 관계이다.

연안 이씨의 시조 이무(李茂)는 당 고종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내다가, 삼국 시대인 660년, 대종관 소정방의 부장(副將)으로 백제 정벌에 참여해 시염성(鼓鹽城)에 식읍 1,000호를 받고 연안후(延安侯)에 봉해졌다. 신라의 문무왕이 높은 벼슬을 제의했지만 이무가 극구 사양하므로 국빈(國賓)으로 예우했다. 나당동맹 와해 때 소정방이 신라도 공격하려 하자 반대했다. 구전(口傳)으로는 그 뒤로 백제의 여인과 혼인하고 신라에 귀화했다고 한다. 또한 이무의 아들이 다시 당나라로 돌아갔다가 그 후손이 다시 발해를 거쳐 신라로 돌아왔다고도 한다.

고려 전기 이전에는 상술했듯이 당 황실의 성씨인 농서 이씨에서 갈라졌다 하여 똑같이 농서 이씨라 불리기도 하였고, 중기에는 영주·영성 이씨 또는 오원 이씨라고도 불렸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높은 벼슬을 한 인물이 많다 보니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파를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 연안 이씨 관동파·동촌 이씨)

한편 전주 이씨에서 갈라진 신 농서 이씨가 있는데, 성주 이씨였던 이승경(李承慶)이 고려 말기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지내며 공작을 세워 원나라



권씨부인의 묘, 남편 이정화의 뒤편이다. 무려 54년 차이로 묻힌 것인데, 고양시 신원동 에 있다. 그 풍수지리적인 연구 대상으로도 적합하다.

조정에서 그의 할아버지 이장경을 농서군공(隴西郡公)에 추봉하였기 때문에 생긴 본관으로 연안 이씨의 연원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다. 즉 연안 이씨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생긴 당 황실의 농서 이씨와도 큰 관련이 없다.

계보는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繼代)를 알지 못하여 후손들은 고려시대에 10개파가 생겼다. 소부감 판사공파(小府監判事公派) 이현려(李賢呂), 태자첨사공파(太子詹事公派) 이승홍(李襲洪),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이송(李松), 통례문부사공파(通禮門副使公派) 이지(李漬), 예부상서공파(禮部尚書公派) 이해(李核), 이부시랑공파(吏府侍郎公派) 이분양(李汾陽), 전법판서공파(典法判書公派) 이방(李昉),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이득량(李得良), 판도정랑공파(版圖正郎公派) 이백연(李伯衍), 영광군사공파(靈光郡事公派) 이계연(李季衍)을 중시조로 하여 각각 기일세(起一世)하고 있다. 문헌이 전해지지 않아 이들 계파는 시조와의 세계는 물론 각 파조들 간의 세대관계도 모른다.

조선시대 정승 9명, 대제학 7명, 청백리 7명, 종묘

배향공신 2명을 배출하였다. 문과 급제자는 255명을 배출하여 전체 8위이며 이(李)씨 중에는 전주 이씨 다음으로 많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 당상자리를 17명이나 배출하였다.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는 판소부감공파(判小府監公派)이다. 세조조의 문신 이석형(李石亨)의 5대손으로, 대호군 이수장(李壽長)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이기(李夔)이고, 아버지는 증영의정에 추증된 이정화(李廷華)이다.

연안이씨 세계

9세 이석형李石亨 도충공 - 10세 이훈李璣 장령 11세 이수장李壽長 대호군 - 12세 이기李夔 좌승지 - 13세 이정화李廷華 부사과 증 영의정- 14세 이보 지평 - 15세 이시달 현감 - 16세 이박, 이제 - 14세 이경 통덕랑 - 15세 시민 주부 - 16세 이철, 이해, 이흠 - 14세 이자 중 판서 - 14세 이귀李貴 연병부원군 좌찬성 - 15세 이시백李時伯 영의정 - 16세 이훈李斯 동지돈녕 부사, - 16세 한원 16세 열

권씨 부인의 남편 이정화 (1520 1558)는 39세에 요절하여 이렇다 할 업적은 없다. 아들 출세로 증직 영의정과 연성부원군에 추봉 되었다. 사후에 귀인이 되게 한 막내아들 이귀가 두 살 때 졸하였다. 묘소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2-1 부인 권씨와 艮坐 상하 연분이다.

연안 이씨와 안동권씨의 만남은 이른바 경화벌족(京華閥族)의 결합이다. 권씨의 남편 이정화는 호남 형이고 신흥 족벌이었다. 권씨는 이미 오래된 재경 족벌이었다. 권씨 부인의 어머니도 연안 이씨로 나온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기자

임에 가글링(Gargling)을 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된다. 가급적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밖에 있을 때는 가끔 눈으로 멀리 보는 원근운동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머리 마사지와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운동, 감정과 마음을 푸는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 치료원리는 通即不痛, 不通即痛(통즉부통, 부통즉통)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고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 안동시내서 동인당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건강 보강강좌가 끝나자 경로잔치가 이어졌다. 점심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육회 비빔밥을 비롯하여 떡, 문어, 닭 편육, 수박, 참외, 토마토, 소주, 맥주, 음료수, 식혜 등 푸짐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날 육회 비빔밥은 권태욱 사무국장 부인 등 부인회원 3명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권원중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이번 답사에서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대중회 권기모 총무국장이 안내하였다.

권주현 권주희 회장

부호장공파 제70회 경로잔치 행사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원중)가 주최하는 제70회 경로잔치가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고문, 원로, 족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역대 파중회장을 역임한 권병균, 권영건, 권주연 등 고문 3명과 원로들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요즘은 봄철인데 이날 낮 기온이 30도를 유지,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로잔치는 국민례, 시조묘소 및 파조위패 판매, 상음례, 회장 인사, 보학강좌 순으로 이어졌다. 권원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로잔치에 족친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중 동인당한의원 원장이 ‘건강한 뇌 관리법’에 관하여 40여 분간 보학강좌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보학강좌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하게 살려면 뇌를 잘 관리해야 한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서 있거나 걸어 다녀야 한다. 허밍(Humming)으로 콧노래를 부르면 산화질소가 생긴다. 또 귀를 잡아당기는 등 귀 주위를 마사지 하거나

안동권씨 주택관리사회 안동 시조 태사묘 참배

안동권씨 주택관리사회(권주희:회장 권주현)는 작년 12월 창립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관리사로서 활동하는 안동권씨 주택관리사들의 친목단체이다.

이 단체의 권주현 회장과 권정섭, 권성환 고문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안동권씨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안동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권문의 역사와 전통

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먼저, 첫째 날은 안동시 서후면 시조 태사묘와 아시조묘를 참배하고, 예전 회룡포와 삼강주막,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전통음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시내 삼태사묘를 참배한 후 임청각, 안동댐 월영교,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관광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영주 전통목밥집에서는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귀경하였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한얼

사랑, 자비, 도덕, 종교... 등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인 속마음은 누구나 부자가 되어서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하나같이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을까? 이것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예외는 아니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성령, 불성, 흑암, 물질... 등으로 꽉 채워져서 움직이는데 그 원리를 한 마디로 ‘한얼’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원리를 발견한 것은 그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한얼’이 그에게 응한 것이라 한다.

이는 명창들의 득음(得音)도, 예술가들의 영감(靈感)도 매 같은 원리이다.



집중하라! 그리고 또 집중하라!

안광(眼光)이 지배(紙背)를 철(徹)하라고 하지 않는가! 집중(集中)과 집착(執着)은 분명히 다르다.

집중은 무엇을 알거나 하려는 것이고, 집착은 무엇을 가지려는 것이다.

집중(集中)은 삼매(三昧)를 거쳐서 곧 밝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며, 집착(執着)은 고통(苦痛)을 일으켜서 어두움과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한얼은 창조와 풍요,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다. 독자들이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한얼에 집중하라, 지난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라.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흘러 갔을 뿐이다. 다만 다가를 앞일들을 생각하라. 앞일을 생각하는 것이 죽은 후에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지금 그대의 생각이 지옥 같은 생각이면 앞으로

도 지옥으로 갈 것이요,

지금 그대의 생각이 천당이면 앞으로도 천당으로 가리라.

전생도, 현생도, 내생(來生)도 다 돌고 도는 우주의 이치처럼, 그저 자리바꿈할 것인 것. 이생에서는 이생의 영혼의 기쁨만을 생각 하시기를...

자! 여기 천국으로 가는 특급 열차가 있으니 지금 빨리 올라타세요!

필자는 종교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처럼 잠시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타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 방법은 오직 한얼적인 생각, 곧 천국적인 생각에 한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가 한얼이니, 모든 것의 있어짐에 진실로 감사하라!

돌 하나, 풀 한 포기,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작은 오솔길, 지저귀는 숲속의 새 한 마리, 피어나는 새싹들, 풀잎 위에 굴러떨어지는 이슬 한 방울, 그리고 내 사람들,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지, 이웃들, 민족과 나라, 두 눈에 보여지고, 두 귀로 듣고 두 콧구멍으로 냄새 맡는 그

불이익 처분시 이의신청 -제출용

세무조사 결과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1. 이의신청**
가.목적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나. 신청 대상
국세부과처분(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액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다. 신청 기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제출

마. 제출 서류
① 이의신청서
②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처분서 사본
③ 사실관계 및 법률적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2. 심사청구
가. 목적
국세청장에게 직접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병행하거나 생각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청구 대상
국세 부과 등 처분 전반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처분 포함)

다. 청구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청구 방법
국세청 심사청구심의위원회에 서면(심사청구서) 제출

마. 제출 서류
① 심사청구서
② 처분 통지서 사본
③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서 및 입증자료
④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

3. 심판청구
가. 목적
국세심판원에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가능하며,이의신청등을 거친 결과 그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구제받기 위한 절차이다.

나. 청구 대상
모든 국세 관련 불복처분 (과세, 징수, 체납처분 등)이 청구대상이 된다.

다. 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청구 방법
국세심판원에 서면(심판청구서)으로 제출

마. 제출 서류
① 심판청구서
-
-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 ② 처분 통지서 또는 관련 문서

③ 사실관계 설명 및 법률적 주장

④ 증빙자료

⑤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
- 4. 감사원 심사청구(국기법 제55)**
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다.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라.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5. 행정소송 (법원 제소)**
가. 목적
세무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최종 구제절차임

나. 제소 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이 가능한 경우(일부 상황)

다. 제소 기간
①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라. 제소 방법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심판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업무수행은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한다.

마. 제출 서류
① 소장
② 처분 및 불복 절차 관련 문서
③ 주장 및 입증 자료
④ 인지세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6. 참고사항
가. 이의신청 → 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가능함
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
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징수유예 신청 가능
-
- 모든 것들을 한 개의 임으로 감사하면서 외치라!
나는 우주요, 나는 한얼이라고.
- 말대로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다. 그 씨는 곧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이며, 곧 열매 맺고, 다음을 향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 될 것이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하면, 그대의 마음에는 지금 새로운 천국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천국, 극락에 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진실로! 진실로 이 우주의 있어짐에 대하여 감사하라!
- ### 씨 놀음
- 씨, 씨앗, 말... 삼라만상은 모두 씨놀이를 하고 있다. 아저씨는 씨를 심고, 아주머니는 씨를 받아서 아기 주머니 속에서 키우고, 춘하추동 사계절 맨 처음에 땅에 씨를 뿌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때를 맞추어 성장순환하고 있다.
- 씨름이란 종족보존을 위하여 수컷끼리의 다툼에서 우위를 가리는 힘의 대결인데, 이것 또한 씨놀음을 하여 누가 그 씨를 심을 종족보존의 승자가 되느냐를 가리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 동물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암컷을 거느리
- 는 자연계를 보라!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씨를 퍼트리기 위한 자연계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을..., 이 씨놀음이 씨름이다.
- 우리는 이 씨라는 말을 줄곧 입에 달고 산다. ‘성씨가 무엇인지요?’, ‘그 사람 마음씨는 참으로 순수해’, ‘저 처녀 한복을 입은 땀씨(땀시) 좀 보세요’, ‘그 솜씨는 참으로 놀라워’, ‘형씨 참 미안합니다’, ‘여보, 오늘 날씨는 어때요’, ‘저 친구 글씨를 잘 써요’, ‘거기는 불씨가 아직 남았나요?’ ‘그 언니는 말씨가 참 고와, ‘마음씨를 바로 써야 성공을 하지’, 상추 씨를 뿌려야지’, 아저씨, 아가씨(아가를 낳을 처녀) 등.
- 이것이 우리말만이 지니는 말의 뉘앙스 속에 담겨진 철학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 세계의 어느 나라 말도 이런 표현에서 ‘씨’라는 정확한 개념을 도출해 낼 말은 없다. 오직 천손(天孫)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이다.
- 그러면 이제 씨(씨앗)의 속성을 알아보자.
이 씨는 어디엔가 뿌려지면 싹을 틔우게 되어있다. 싹을 틔우는 것은 자기의 생명은 죽고 보다 더 많은 씨를 얻기 위함이다. 요즘 말로 자기복제를 위함이다.